
美合衆國「빌 클린턴」大統領 國會演說文

-1993年 7月 10日-

의장님, 의회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의 목표인 민주주의를 위해 이곳에 모인 각 정당 국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저의 아내,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그밖의 미국 군사, 정치지도자와 이곳 민주주의의 전당에 오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5년전 이 아름다운 여러분의 수도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후, 한국의 활기와 문화는 여러면에서 세계에 알려졌고, 서울은 계속해서 힘차게 성장했으며, 한국경제는 발전을 거듭하였고, 한국은 올림픽을 개최하였으며 유엔의 정식회원국이 되었으며 러시아 및 중국과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위대한 업적은 과감한 민주주의 기수인 金泳三大통령을 선출하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일입니다.

지리적으로 우리 양국은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는 가깝습니다. 우리 양국은 자유수호를 위해 어깨를 맞대고 싸우면서 血盟關係를 맺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경제발전을 이룩함에 따라 우리 양국은 상당히 균형을 이룬 300억달러 이상의 규모의 무역상대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발전은 양국민간의 공통된 가치관을 다시한번 증폭시켜 주었습니다.

43년전 트루먼 대통령이 美軍을 한국에 派兵했을때 그는 “신 앞의 모든 자유인은 모든 인류를 위해 같이 일하는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미국국민 뿐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 국민을 위해 기여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로 이 지역국가들은 보다 안정되고 번영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냉전이

중식되고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나아가 전세계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공동체로서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공동의 힘과 번영, 또한 민주적 가치에 대한 공동의 다짐을 바탕으로 새로운 태평양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저는 신태평양 공동안보의 기본요건과 미국이 수행할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며칠전 東京에서 개최된 G-7 頂上會談기간중 저는 와세다(早稻田) 대학에서 새로운 동반자 관계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경제개혁이 한국과 같은 시장경제체제를 위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安保입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적극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도 태평양국가입니다. 미국에는 지금 백만명이 넘는 한국인을 비롯해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이주해온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세기에 세차례나 이 지역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헛되이 해서는 안됩니다.

이 지역에서의 침략을 막고 경제성장을 영구화하고 해상의 권리와 기타 다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도력을 발휘해야하며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일부 미국인들은 미국의 세계 지도력이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舊時代의 사치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의 세계적인 지도력이 지금처럼 필연적이고 가치 있는 투자였던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미국이 바다로 둘러 싸이고 무역으로 성장하는 한, 미국의 국기가 이 불안한 세계에게 민주주의 희망의 상징으로 존재하는 한, 미국 지도력의 필요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신태평양공동체 안보를 위해 네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미국의 군사공약이며, 둘째는 대량파괴무기 확산의 금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며, 셋째로 공동안보문제에 관한 새로운 대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끝으로서는 이 지역의 민주화와 보다 개방된 사회를 유도하는 일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안보를 위한 미국의 기초적역할은 군사주둔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및 태국 등 5개국과 체결한 상호방위협정을 재확인합니다.

이런 협정들은 협상당사자들에게 유익하며, 미군으로 하여금 상당한 수준의 전방군사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이 군비경쟁보다는 평화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일본과 한국이 미군의 군사주둔 비용을 부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두 주재국에게 있어 미군주둔의 중요성을 입증해주는 것입니다. 韓美 양국의 동맹관계는 이 지역에 대한 미국방위 공약의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냉전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단된 한국은 아직도 쓰라린 냉전의 잔재로 남아있습니다. 미국 국민은 한국국민처럼 언젠가는 한국의 인위적 분단이 끝날 것이라고 항상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국민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平和統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한국 국민들이 설정한 조건에 따라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아직도 안전과 위협사이에 완전한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북한의 100만 무장군인은 대부분 DMZ로부터 30마일 이내에 배치되어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北韓의 핵개발계획은 그들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국내정치 탄압과 무책임한 무기판매는 북한이 아직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의사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안보에 대한 우리의 公約은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중요한 관심지역입니다. 미군은 한국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한 계속 이곳에 주둔할 것입니다.

미국은 수만명의 값진 생명을 한국의 산하 그리고 하늘에서 잃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수백만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우리는 위약함은 침략을 초래하며, 평화는 전쟁억제력에 의존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敎訓들을 다시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이 지역에 군사주둔을 계속하려는 공약은 변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필리핀과 합의해서 기지를 폐쇄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시아국가들이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보다 큰 시야로 보면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쳐 미군주둔이 가능한 지역이 확대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이지역을 넘어선 작전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곳 한국에서는 미군철수를 동결했고 한·미군을 현대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벨로주우드(Belleau Wood) 육해공 합동군을 주둔시켰고 세계 최대·최신의 전함 인디펜던트호를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철수의 신호가 아니라 미국이 계속 주둔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태평양 공동안보상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대량살상무기와 그 발사장치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공할 무기의 위협이 증대되어 냉전시의 핵공멸의 악몽을 재현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날 그럴 가능성은 너무나 많습니다.

북한은 걸프전 당시 공포와 파괴의 주범이었던 스킨드미사일을 대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사정거리 600마일 이상의 보다 뛰어난 성능의 미사일을 개발·시험하여 수출하려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오사카를 위협하고 이란이 텔아비브를 위협하는 사정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또한 中國의 유도탄 확산방지에 대한 국제규정 준수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히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하려고 있으므로 상호 협력해서 중국에게 이 문제에 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평양 국가들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여 미생물·화학무기 그리고 유도탄 개발기술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앞으로 수주후에 미국은 이를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할 것입니다. 한반도 및 그 밖의 이 지역국가에게 있어 핵확산의 위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거의 160개국 이 그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서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습니다. 이는 인류역사상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회원국의 하나가 탈퇴를 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확고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확산금지를 위한 강력한 국제규칙을 추구합니다. 북한에게 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시킴과 동시에 비공개된 핵시설에 대한 IAEA의 査察을 포함한 국제원자력 위원회의 모든 안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남북한 핵협정에 따른 상호사찰을 수락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바로 이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끝없는 論議가 아니라 분명한 履行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도는 침략을 방지하자는 것이지 시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유엔헌장과 국제 핵확산금지 규정을 준수하는 한 북한은 미국을 두려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다시 비핵화를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수

행할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장래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남 북한이 합의한 핵협정은 기존 국제협정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핵무기를 한반도로부터 추방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생산도 금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획기적인 협의가 충실히 이행되어 다른 지역의 핵긴장을 해소하는데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핵확산과 같은 당면한 문제를 처리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 시대에 보다 광범위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최근 종결된 G-7회담에서 본인이 추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G-7국가들의 저조한 실업률 감소와 같은 새로운 문제를 다룰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나토정상회담을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와 도전에 직면해서 나토를 적절히 변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에 있어서 소련이라는 하나의 압도적인 침략위협이 없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두 지역에는 냉전종식 이후 오랜 인종 및 종교분쟁, 난민문제, 살인무기 및 마약거래 등 여러 문제들이 새로 발생하거나 재현되었습니다.

유럽에서의 이러한 변화때문에 우리는 기존안보기구인 나토를 변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태평양지역에는 그러한 기구가 없습니다. 아·태 지역에는 단일 위협이 없기 때문에 그와같은 단일 동맹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90년대의 아시아지역의 과제는 여러 위협과 기회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다각적 체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제들은 이중 갑옷처럼 개별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집합적으로 공동안보문제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새로운 체제의 하나로서 당면한 문제에 대해 수개국이 개입해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델이 바로 우리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양국은 상호 협력했을 뿐 아니라 일본, 그밖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의 협조도 구했습니다.

또 하나의 체제는 캄보디아의 화해를 지원하는 대규모 유엔평화유지 활동과 같은 것입니다. 또다른 체제는 지역과 소지역의 분쟁해소를 위한 신뢰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지역안보를 위한 대화체제가 필요합니다. 이달에 싱가포르에서 열릴 아세안 각료회담에는 미국이 참가할 예정이며, 이는 그런 대화를 촉진하는데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신 체제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東京, 北京,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두 시간의

비행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내에서의 다양한 경제협정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과 투자장벽을 낮춤으로서 직장을 창출하고 지역긴장을 완화하며 지역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對話機構 창설을 환영합니다. 올 가을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개최될 APEC 각료회담후 APEC 지도자간의 비공식 경제회의를 열자고 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목표는 이 지역 강대국의 힘을 통합하자는 것이지 고립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권을 존중하고 무역 및 무기판매에 대한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중국도 이 지역의 신안보·경제건설에 참여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립된 중국이 아니라 참여하는 중국을 필요로 합니다.

일부 미국인들은 지역안보대화 시작이 미국이 철수하기 위한 구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를 꺼리고 있습니다만 이는 우리의 동맹과 전방군사배치를 없애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냉전종식으로 지역대결, 혼란 및 군비경쟁이 가열되는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21세기까지 이어지는 공동안보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보는 지역국가들 자체의 위치와 의사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최종적인 안보과제는 아·태지역에 있어서 민주주의 확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주국가는 자국 국민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할 뿐 아니라 인접 국가에 게도 도움이 됩니다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테러를 자행하지도 않으며 난민을 발생시키거나 마약·무기 밀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무역상대국이 되며 앞서 말씀드린 대화의 상대국이 됩니다.

민주주의나 인권은 아시아에서 맞지 않는다거나 심지어는 서구의 문화적 제국주의를 가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천안문광장에서 민주정신을 선포한 차이링, 버마의 탄압을 반대하며 열변을 토함으로써 세계를 진동시킨 아웅산수지, 러시아를 태평양의 훌륭한 민주국가로 이끌고 있는 보리스 옐친 그리고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민주주의 꽃을 피게한 귀국의 金泳三대통령, 그리고 各 黨의 국회의원 여러분의 소리에 저는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은 실로 아·태지역의 모든 국민의 모범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정치·경제개혁을 수행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공개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방하여 전

진케하는 용기를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국민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모든 나라는 자국 고유의 문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서구로부터의 수입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것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소망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적인 정신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지역 전체를 통해 이러한 소망에 부응해야 합니다. 公開選舉, 勞組, 自由言論 등 시민사회의 초석이 되는 非政府機關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아시아의 폐쇄된 사회를 위해 정확한 뉴스와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아시아 민주주의 방송국을 창설할 것을 제의했고 머지않아 이 방송국이 설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7년전 미국의 建國始祖들은 자치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바 있습니다. 저는 이곳 아시아 땅에서 하나의 신조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공동안보를 위한 굳건한 초석으로서 이 선언을 다시 천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신태평양공동체 안보에 대한 미국의 미래 구상은 미군의 계속 주둔, 새로운 확산방지 노력, 새로운 지역 안보대화구축 그리고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이러한 안보요소들은 경제적 경쟁은 활발하지만 평화적이며, 다양한 국가들이 공동안보를 위해 동반자 관계를 이루며, 민주주의와 균형된 군사력이 안보의 보루역할을 하는 태평양지역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하루아침에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태평양공동체가 노력없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두 나라는 분명히 열심히 노력하는 국가입니다.

저는 1992년 올림픽마라톤에서 바르셀로나의 마지막 언덕을 이겨내서 금메달을 딴 한국의 훌륭한 마라톤 선수 황영조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의 정열과 인내는 오랜 고난의 역사를 이겨냈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번영을 이룬 한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서로 어깨를 맞대고 싸웠고 앞으로도 그럴것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실로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 이 마라톤에서 같이 뛰시다.

감사합니다. ☺